

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 6 : 27)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무더운 한 여름을 코로나와 싸움하시면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모든 동역자님 가운데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동역자님들의 삶가운데 함께하셔서 늘 승리의 나날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곳 선교지에서도 그 동안 델타바이러스의 창궐로 인도네시아 여러지역들이 사회적제한 4단계로 어둡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그러한 시기와 때마다 더욱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케 하시며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까지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가운데 있고 또 교회와 신앙생활, 그리고 특히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의 위협이 우리의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음이 일반적인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오늘까지 잊지않으시고 사랑의 기도와 소중한 지원으로 이곳 선교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웠지만 그래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역들의 진행과 상황들을 오랫동안 전하여 드리며 이 기도소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중안 신학교 소식

펜데믹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신학교에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매일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자율적으로 체제에 맞춰 나름대로 일찍 위드(with?) 코로나를 실행하는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큰 위험이 없이 잘 지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올 해도 28명의 신입생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부르심을 따라 교내로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개설하여 30명의 신입생과 신학과 30명등 60명 정원을 계획했지만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절반밖에는 계획 실행에 차질이 생기는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학교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한 사람에 외국인 선교사를 향한 대 정부 관계에 대한 스폰서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올 해도 펜데믹으로 비자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간에 어려움없이 연장을 잘 마치도록 힘써주는 수고와 또 외국인으로 이곳에서 백신접종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들에 책임을 다해주는 수고에 감사를 드릴뿐 입니다 제가 사역한지도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는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 시간까지 신학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실것은 아직도 계속되는 펜데믹에 교내의 모든 신학교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며 신학교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에 차질이 생기는 이 시기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소식

유치원도 펜데믹 시기를 지나 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원아모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아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유치원 교육은 그냥 지나친다 해도 무방하기에 부모님들의 열성과 용기가 없으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원아모집이 매우 어려우리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8명**의 원아들이라도 매일 유치원에 모이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교사들과 함께 이 원아들 만큼도 못 모이지 않을까 했던 우려를 생각하면 **18명**의 원아들로 인해서 유치원 교실의 문이 열릴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생각하면 많은 긴장과 염려를 가지고 교실에 모이고 있지만 전 교사들이 백신접종을 마쳤고 또 마스크와 철저한 소독등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수업시간에 교사와 원아들의 소리가 교실밖까지 매우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가는 듯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야기 시간에는 그 열기가 더욱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듣는 저도 은혜를 받으며 이 사역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솔라 그라시아 유치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원아들을 보내주시며 (아직도 **9월**까지 새 원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현재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실사대비 준비와 유치원 인가연장서류 준비등으로 교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B, C가 있습니다)를 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숙사 소식

이번 새학기에도 새로운 기숙생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예정으로는 2명이 오도록 되었기에 모든 준비를 하였으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외지로 보내기에는 아직도 그 염려가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기도부탁을 드렸던 **Depi**와 **Meni**는 여군지원을 접고 신학교에 입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면담결과 안중안신학교의 신학생으로는 부담이 크다고 하여서 자카르타의 제가 잘 아는 좋은 신학교가 (**Arabona** 신학교) 있어서 기숙사 생활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지금은 집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으로는 개인적인 성경공부와 겸하여 제자훈련을 일주일에 한번씩 시도하여 말씀가운데 참 부르심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헌신적인 신학생으로 먼저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Depi 와 **Meni**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기숙사에서는 처음으로 신학교를 보내는 기숙생들입니다 아름다운 기숙사의 사역의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개인소식

저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요즘은 많이 그리고 계속 건강해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면장애도 견딜만큼 매우 좋아졌습니다 알레르기도 아직은 때때로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잊지않고 기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동역자인 **Lilik** 형제도 계속 항암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전이된 엉덩뼈에 있는 암이 어려운 악성이어서 완치까지는 길이 좀 멀것 같다는 의사의 중간 진료의 소견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향하신 귀한 목적이 계시면 또 완치시켜 주시리라는 소망을 붙들며 또 그렇게 격려와 기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형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하여 이 **Lilik** 형제를 위해서도 아낌없으신 기도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가지 어렵고 제한된 상황에서도 시간의 흐름은 여전히 야속하리만큼 살같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날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가운데 어느 목사님께서 주님의 일은 주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그분은 동행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 동역자님들에게도 이 시간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 소식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 깔리만탄에서 한옥희 선교사 드림